

신세계百, 설 선물 매출 사상 최대... 전년비 51% 신장

선물 허용가액 상향 조정 호재
10~20만원대 선물세트 수요 증가
한우 등 프리미엄 선물편성 확대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이 20만원으로 늘었고, 비대면 설 트렌드로 고향 방문 대신 프리미엄 제품을 보내는 등 어느 때와는 다른 명절 분위기가 주효한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세트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51.3% 신장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는 정육(한우) 51.8%, 수산 45.4%, 농산 53.3%, 건강/차 58.2%, 주류 48.4% 등의 신장률을 보



신세계 설 선물세트 이미지

/신세계백화점

였다. 1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예약판매 역시 79.5%로 높은 실적이었다. 특히 정부의 선물가액 상향 조정으로 10만~20만원대의 선물세트를 찾는 수요가 많았다.

이에 신세계백화점도 한우 부위별 프

리미엄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 설 대비 20% 이상 확대했다. 가격은 14만~18만원에 맞췄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새해 인사를 좋은 선물로 대신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30% 늘렸다.

온라인 전용 상품도 카테고리별 다양화했다. 온라인 상품은 선물세트 판매 기간 전년 대비 67% 신장했으며, 특히 축산 65.4%, 수산 49.9%, 청과 78.8% 등 기록하며 비대면 쇼핑 강세를 보여줬다.

어느 때보다 위생과 면역력이 중요해지면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명품 수삼 세트부터 새롭게 출시한 지리산 목청꿀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매년 베스트 상품인 홍삼과 더불어 수삼 원물세트도 지난 설보다 매출이 43% 늘었고, 홍삼 세트 매출은 59% 증가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이 늘고, 선물로 마음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프리미엄 세트를 찾는 고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발굴해 고객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U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 /BGF리테일

CU '추억의 맛' 바둑 초콜릿 인기

추억의 바둑 초콜릿이 재등장했다. CU는 지난달 선보인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이 인기 초콜릿 '몰티저스'를 제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출시되자마자 1월 한 달 동안만 5만 개 이상 판매됐고, 매출 순위도 초콜릿 카테고리 내에서 3위를 차지한 그 제품이다. 이는 '악마의 스낵'으로 불리며 최근 인기몰이 중인 몰티저스보다 두 계단 높은 순위다.

해당 상품은 최근 SNS에서 가족 간 오뎅, 알까기 등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공유되면서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바둑 초콜릿은 한 대형 제조사가 생산했다가 2000년대 후반 단종된 상품이다. 지난해 식품업계에 불어온 레트로 트렌드에 맞춰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 즐기는 추억을 그리워하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재출시 요청이 이어졌다.

바둑 초콜릿은 바둑알과 바둑알통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맛은 물론 상품 패키지까지 기존 상품과 유사하게 구현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바둑판도 추가로 제공했다. /신원선 기자

마스크 너머 너만의 매력 어필... 향수·스킨케어 매출 ↑

갤러리아 1년 화장품 매출 분석
전년 동기비 향수매출 38% 급증

갤러리아백화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화장품 시장이 향수와 기초화장품인 스킨케어로 집중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갤러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1년 화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향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3%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스킨케어 매출은 6.9% 신장,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전체 매출이 4.7% 신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색조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데 한계가 생기자 향기를 이용한 너만의 특별함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향수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



갤러리아명품관 바이레도 매장에서 한 고객이 향수를 보는 모습

/갤러리아 백화점

블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초화장품인 스킨케어 제품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갤러리아는 지난해 12월 명품관에 신규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를 강화했다.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엑스니hil로(EX NIHILO), ▲뉴욕 감성

의 니치 향수 브랜드 디에스앤더가(D. S. & DURGA) ▲도서처럼 조향사의 서명과 이름이 새겨진 책 모양의 박스로 출시되는 프랑스 브랜드 프레데릭 말(Frederic Malle) 등의 3개의 신규 향수 브랜드를 선보였다. 특히 엑스니hil로(100ml 기준)의 경우 40만~

50만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향수다.

스킨케어 화장품 강화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샤넬에서 샤넬 스킨케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샤넬 프리베(CHANEL PRIVE)' 매장을 오픈했고, 스웨덴 스킨케어 브랜드 라부르켓(L:A BRUKET)도 명품관에 국내 단독으로 선보였다.

이외에도 갤러리아는 지난해 갤러리아 광고에 처음으로 선보인 스킨케어 라운지와 프리미엄 향수 특화존 '메종 드퍼퓸'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갤러리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관 니치 향수 대전'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디에스앤더가, 엑스니hil로 등 신규 향수 브랜드를 비롯하여 바이레도, 산타마리아노벨라 등 총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신원선 기자

고추장의 '매운맛', 할랄시장에서 인기

사조대림 철저한 할랄인증 주요

사조대림은 자사 순창고추장이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사조 할랄고추장 2종의 판매량은 진출 첫해인 2018년 대비 약 1360% 신장했으며, 그 이듬해인 2020년에는 11월까지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00% 가량 성장하는 등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조대림은 할랄푸드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말레이시아 시장에 할랄인증 제품을 출시했다. 사조대림 순창공장은 지난 2018년 6월 할랄제품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할랄인증을 받았다. 현재 사조대림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사조 할랄고추장'과 '사조 매운 할랄고추장'을 선보이고 있다.

사조대림은 인기 요인으로는 한국 고추장의 매운맛이 동남아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다 한류열풍과 함께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한국음식들이 소개되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철저한 할랄인증을 통해 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사조대림은 고추장에 이어 다양한 맛과 형태의 'K-장류'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할랄인증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사조 고추장 떡볶이 양념'과 '사조 찜장'을 출시 준비 중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CJ제일제당, '쿡킷' 명절음식 4종 출시

수비드 소사태찜, 소고기육전·모듬전 소고기버섯듬뿍잡채, 매생이굴떡국

CJ제일제당이 설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밀키트 '쿡킷'의 신메뉴 '특별한 명절 음식'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메뉴는 '수비드 소사태찜' '소고기육전과 모듬전' '소고기버섯듬뿍잡채' '매생이굴떡국' 등 4종이다.

'수비드 소사태찜'은 소의 사태 부위를 활용해 만든 찜 요리로, CJ제일제당에서 개발한 특제 양념을 더해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다.

수비드 공법으로 고기를 익히고, 양념에 재운 상태로 진공 포장해 보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소고기 찜을 30분 만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비드 공법이란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음식

물을 가열해 조리하는 방법이다.

명절 필수 음식인 전 요리와 잡채도 선보였다. 소고기육전과 새송이버섯전, 새우전으로 구성된 '소고기육전과 모듬전'은 명절 분위기를 더해준다. 함께 들어있는 대파채, 참나물 등을 무쳐 함께 곁들일 수 있다. 채 썬 소고기와 버섯을 듬뿍 넣어 담백하면서도 향긋한 '소고기버섯듬뿍잡채'는 채소 등 재료가 모두 손질돼 있어 번거로움을 줄였다.

겨울 제철 식재료인 매생이와 굴을 넣어 바다향이 가득한 '매생이굴떡국'도 준비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8일까지 쿡킷 홈페이지에서 '설 명절 특별한 음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조효정 기자

도미노피자 설맞이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가 8~14일 설맞이 프로모션을 연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모든 프리미엄 피자 L 사이즈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존 회원은 물론 이 기간 신규 가입 회원도 해당한다.

주문 대상 피자 중에는 '소소 피자'도 있다. 신축년 소의 해를 기념하는 한정판 제품이다. 소고기 토핑이 메인인 '직화 스테이크 피자'와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를 한 판에서 즐길 수 있게 한 하프 앤 하프 제품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도미노피자를 사랑해주는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할인 쿠폰을 준비했다"며 "아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 안에 가입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조효정 기자

